기술은 데이터 중심적인 변화를 위한 '공식'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조직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조직들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을까요?

데이터 준비성(Data Readiness):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성과 향상

2019 년 9 월

저자: Dr. Chris L. Marshall and Jessie Danqing Cai

Executive Summary

데이터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도입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힌 디지털 네이티브 슈퍼스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과 규모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술만으로 그러한 경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현명한 경영진들이라면 기술은 데이터 중심적인 변화라는 공식에 있어서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영향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Executive Insights 보고서는 **인력**(조직 및 숙련 기술), **프로세스, 기술, 거버넌스** 등 핵심적인 부문을 토대로 아시아 태평양(AP) 조직의 데이터 준비성 지수(DRI; Data Readiness Index)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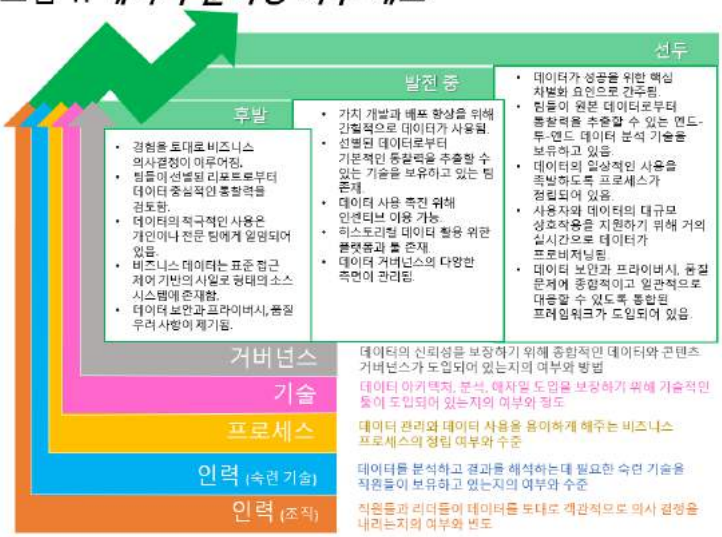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가장 중요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수준의 데이터 준비성을 갖춘 조직들은 그렇지 않은 조직들에 비해 90% 향상된 비즈니스 성과 매트릭스[1]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직적(데이터 중심적인 의사 결정과 협업 등)이건 개인적(데이터 숙련 기술 등)이건 간에 **인력**과 관련된 요인이 성과 측정 시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하향식(Top-down) 접근에 있어서, 인력(조직) 요인은 평균적인 DRI 점수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꾸준히 가장 높은 순위로 조사되고 있으며, 데이터 준비성을 위해 활용하는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용이한 요인으로 제안합니다. 상향식(Bottom-up) 접근에서 인력(기술)은 평균적인 DRI 점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조직이 데이터를 주도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전체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고, 기업 비즈니스 영향을 위해서 직원들간에 데이터 리터러시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림 1: *데이터 준비성 지수 개요*



출처: IDC, 2019

» **인력 관련 요인에 비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데이터의 관리, 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련 요인이 우선됩니다.

» 개인적인 데이터 숙련 기술의 수준은 DRI 의 평균 점수를 능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감안해볼 때, 조직들은 직원들이 데이터 해석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와 숙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 조직들이 변화를 독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실행 요인, 즉 **거버넌스**와 **기술**을 채택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와 기술은 다양한 조직에서 데이터 준비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보다는 맞춤화된 접근 방법이 요구됩니다.

» 보다 큰 규모의 조직들은 보다 높은 DRI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세스와 **인력** 관련 요인(특히 숙련 기술)에서 다른 조직들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성의 정의와 중요성

데이터 관련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데이터 준비성의 수준은 사업부서와 기업, 업종,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모든 조직들은 자사의 현재 디지털 준비성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야 하며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적절히 변화에 대한 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표 1: ***데이터 준비성의 각 부문 및 발달상의 밴드(Band) 정의***

부문	설명	밴드 1 (선두) 특징	밴드 2 (발전 중) 특징	밴드 3 (후발) 특징
인력 (조직)	직원들과 리더들이 데이터를 토대로 협업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의 여부 및 빈도.	데이터를 토대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성공의 핵심적인 차별화 요인이 데이터임. 직원들은 업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부서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함. 이를 위한 분석 툴과 제품, 플랫폼 커뮤니티의 활용도가 높음.	데이터를 토대로 일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데이터는 가치 개발 및 배포 향상을 위해 사용됨. 직원들은 부서 내에서 상호간의 업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업함. 이를 위한 분석 툴과 제품, 플랫폼 커뮤니티의 활용도가 낮음	개인의 직관이나 경험을 토대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데이터의 가치는 사후에 제공됨.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의 공유와 협업은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인력 (숙련 기술)	직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수준.	높은 수준의 애널리틱스를 포함해 원본 자료에서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여러 팀들이 보유하고 있음. 또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참여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선별된 데이터로부터 기본적인 통찰력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들이 있음. 이 팀들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참여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료들에 접근할 수 있음.	선별된 보고서와 콘텐츠로부터 데이터 중심적인 통찰력을 검토 및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팀들이 있음.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데이터와 분석 결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분투하고 있음.
프로세스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비즈니스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혁신을 강화하도록 팀원들의 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음. 주요	직원들이 업무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리소스를	업무의 효율성과 혁신 향상은 개인에게 일임되거나 전용 팀이 담당함. 개별 실무부서(LoB)들이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정립 여부와 수준.	관계자들에게 공통의 성공 KPI 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일관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애자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음. 실무부서(LoB)와 분석 역량 센터에 데이터 관리자가 있으며 IT 와 함께 데이터 프로그램의 실행을 담당함.	할당하며 리포팅을 위한 전사적인 접근 방법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관계자들을 위한 성공 KPI 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데이터 관리 역할은 IT 내부에서 중앙 관리되는 형태이며 데이터 프로그램에 대해 비즈니스 부서와 협력하도록 정립된 프로세스를 따름.	분석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독립적으로 접근함. 데이터 관리 역할은 IT 내부에서 중앙 관리되는 형태임. 비즈니스 부서와의 협력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음.
기술	효과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와 데이터 분석, 민첩한 도입을 위해 기술적인 툴이 적용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정도.	다양한 소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계층을 유연하고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함.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프로비저닝됨. 시각화, 자연어 이해, 분석 툴킷을 통해 사용자와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을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툴이 있음.	다양한 소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계층이 있음. 데이터 수집과 집합, 준비 및 조사를 다루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디스커버리 플랫폼 및 툴이 있음.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주로 히스토리 데이터임. 사용자와 데이터의 상호 작용은 역량 센터가 제공하는 전문 지식으로 간주됨.	비즈니스 데이터는 다양한 소스 시스템에 존재하며 접근에 일관성이 없고 변화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업데이트되지 않음.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이러한 데이터의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에 승인을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거침. 사용자와 데이터의 상호 작용이 관리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음.
거버넌스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와 콘텐츠 거버넌스가 종합적으로 도입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정도.	다양한 부서에서의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품질에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맞춤화되고 통합된 솔루션과 정책 및 프로세스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어 있음.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신뢰할 수 있음.	보안과 프라이버시, 품질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정책이 도입되어 있음.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와 콘텐츠가 관리되고 있음.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음. 주로 이슈가 발생할 때 솔루션과 정책, 툴이 도입됨.

출처: IDC,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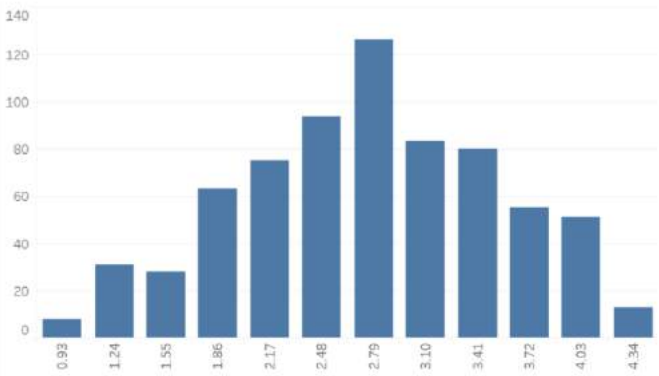
IDC 는 Tableau 와 공동으로, 조직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개인 및 커뮤니티가 담당하는 중심축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DRI 를 개발했습니다. 표 1 은 5 대 부문과 조직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성숙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3 단계 발전 과정의 밴드(선두 조직, 발전 중인 조직, 후발 조직)에 대해 정의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DRI 는 IDC 의 데이터 우수성 성숙도 모델(Data Excellence Maturity Model[2])을 토대로 조직들이 어떻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IDC 는 2019 년 2 분기에 한국과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 일곱 개 시장 707 개 조직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DRI 에 대한 벤치마킹을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준비성 지수(DRI) 개요

- DRI 점수: 선두 밴드(DRI>3.6)의 조직들은 후발 밴드들보다 일관되게 향상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 모든 조사 대상 조직의 평균 점수는 2.9 점(최대 5 점 중에서)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조직들이 발전 중인 밴드(2~3.6 점)에 속해 있었습니다.
- 부문: 조직과 숙련 기술 모두에서 인력이 비즈니스 성과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 ***DRI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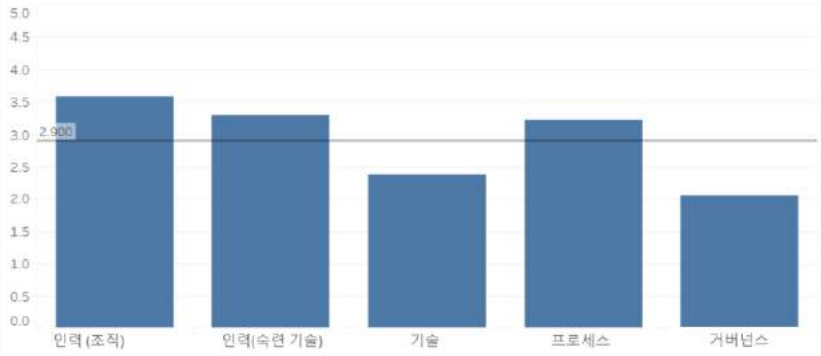
출처: Tableau-IDC Data Readiness Index, 2019

그림 2 는 707 개 조직의 DRI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밴드 편성 방법론[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 중에서 141 개 조직이 **선두 밴드**(DRI>3.6)에 편성되었으며, 469 개 조직이 **발전 중인 밴드**(2<DRI<3.6)에 위치했으며, 남은 97 개 조직은 **후발 밴드**(DRI<2)에 속했습니다.

1~5 점까지를 기준으로, 모든 조사 대상 조직들의 DRI 평균 점수는 본 점수 시스템에서 완벽한 중앙값인 2.9 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수는 조사 대상 조직들 대부분이 DRI 의 발전 중인 밴드에 위치해 있지만, 점수분포는 낮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IDC 연구원들의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전체적인 부문의 평균 점수는 그림 3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력(조직)**은 평균 3.5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력(숙련 기술)**이 3.29, **프로세스**가 3.22 순이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부문인 **기술**과 **거버넌스**는 각각 훨씬 낮은 2.37 점과 2.05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들을 시장별, 업종별 등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상대적인 순위에서 대부분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3: 5가지 부문의 ***DRI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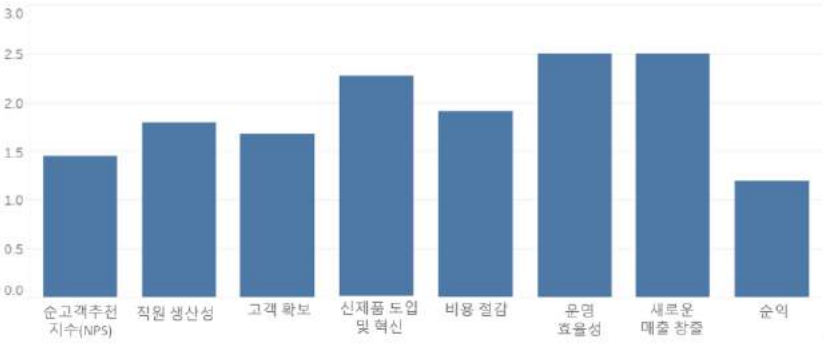
출처: Tableau-IDC Data Readiness Index, 2019

-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조직)**이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데에는 다른 부문에 비해 그 중요성이 높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구현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문은 **인력(숙련 기술)**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근소한 차이로 **프로세스**가 차지했는데, 인력과 관련된 요인과 직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프로세스)이 비즈니스 성과를 이끄는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반면에, **기술**과 **거버넌스**는 설문 대상 비즈니스 리더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데이터 준비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문들은

본질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경우 인력과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변화 관리가 수반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부문들 역시 조직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인력** 부문에서 앞서 있는 조직의 경우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DRI 는 이러한 5 가지 부문에 대해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한 총합이며, 조직들이 현재 직면한 데이터 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요약해 보여줍니다. DRI 는 조직의 데이터 준비성과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 분석입니다. 보다 자세한 기술적인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IDC 는 DRI 와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상관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DRI 밴드들이 낮은 순위의 밴드들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DRI 설문을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지난 2 년 동안 최신 데이터 및 분석 이니셔티브를 통해 성과 향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림 4 는 8 개의 다양한 핵심 성과 지표(KPI)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림 4: 비즈니스 실적의 증폭 ***(DRI 선두 vs DRI 후발)***



출처: Tableau-IDC Data Readiness Index, 2019

» 데이터 준비성 점수가 높은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DRI 의 선두 밴드에 속한 조직들은 후발 밴드의 조직들보다 일관되게 성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들은 후발 밴드들과 비교해 8 개의 모든 KPI 항목에서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상된 범위는 1.2 배에서 2.5 배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9 배(90% 향상) 향상되었습니다.

» 선두 조직들은 특히 새로운 매출 창출과 운영의 효율성, 신제품 도입과 혁신에 능숙합니다. 후발 밴드에서 선두 DRI 밴드로까지의 증폭 효과는 순익과 같은 다른 KPI 항목보다 "운영 효율성"과 "새로운 수익 창출"에서 훨씬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순익과 같은 복합적 KPI 의 경우 수많은 잠재적인 방해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분석을 통해 데이터 준비성의 비즈니스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부문을 드릴 다운하고 각 부문이 성과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IDC 는 집합적인 DRI 밴드가 아닌 개별 부문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선두 밴드의 개별 부문 점수를 높였을 때 비즈니스 성과와 관련된 평균 증폭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5 개의 후발 밴드들[5]이 최고점을 기록한 밴드로 향상되는 상승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요인을 개선할 때 전반적인 성과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각 부문의 초기 단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해당 요인에 대한 선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인력(조직)**과 **기술**은 조직의 DRI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때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큰 변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분야입니다. DRI 점수가 1.6 점 미만인 조직의 경우, **인력(조직)**은 가장 큰 증폭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DRI 점수가 2.0 을 넘어설 때 대폭 하락하며, 그 이후(DRI 점수가 2.0~2.8 까지) 기술에 대한 동기는 가장 큰 증폭 효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조직의 경우, 하향식의 조직적인 리더십

이니셔티브로 시작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변화가 데이터 준비성의 최대 인에이블러가 됩니다.

» 다른 세 가지 부문인 **프로세스**와 **인력(숙련 기술)**, **거버넌스**는 비교적 영향력이 적지만 꾸준하게 효과를 발휘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조직의 DRI 점수가 낮은 밴드에서 중간 밴드로 진전될 때의 변화도 적은 편입니다.

요약해보면, DRI 점수가 1.6 미만인 조직에게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요인인 **인력**(조직)과 **기술**입니다. **기술**과 **인력**(숙련 기술)은 DRI 점수가 2.0 주변에 해당되는 조직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DRI 점수가 2.4 이상인 조직에게는 **기술**과 **프로세스**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아키텍처와 데이터 분석, 민첩한 도입을 위해 기술적인 툴이 도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정도를 포함해 가장 일관적으로 효과적인 요인은 **기술**로 나타났습니다.

상세 결과 – 데이터 준비성 패턴

이번 섹션에서는 시장별, 업종별, 부서별, 기업 형태별로 DRI 의 트렌드와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DRI 점수 집계와 개별 부문 점수, 조직의 최신 데이터 및 분석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최고의 리포팅 결과, 응답자들의 과거 및 향후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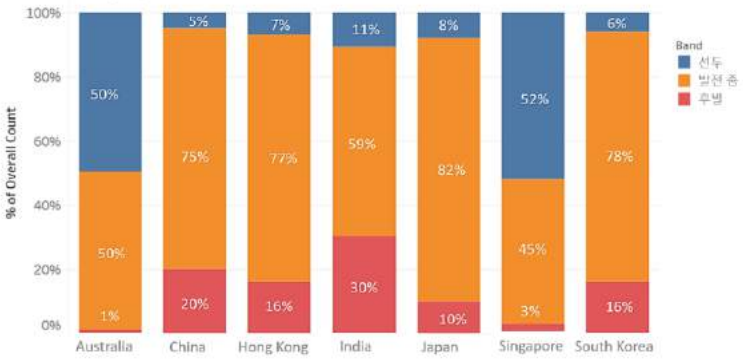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수치들은 반올림 처리되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별 데이터 준비성

데이터 준비성은 아시아와 호주를 아우르는 아시아 태평양(AP) 지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치의 패턴과 기대치, 행동 등 각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DRI 선두 밴드에 속하는 조직(파란색)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후발 밴드(붉은색)의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5: *국가별 DRI 밴드*



출처: Tableau-IDC Data Readiness Index, 2019

» **호주**는 AP 지역에서 가장 높은 DRI 평균 점수(3.54)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의 조직들은 **인력**(조직) 부문에서 4.4 점, 프로세스에서 4.1 점, 기술 부문에서 2.9 점으로, AP 에서 최고점을 나타냈습니다. 종합해볼 때, 데이터에 근간해 의사 결정을 내리며 광범위하게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호주의 조직들과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사용에서 보다 정립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와 분석을 위해 적절한 툴을 도입하는 방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준비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DRI 최고점을 기록한) 조직들은 순수 고객 추천 지수인 NPS 와 같은 KPI 에서 가장 큰 향상(+28%)을 거두었으며, 직원의 생산성(+27%)과 비용 절감(+27%)도 가장 높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데이터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호주 기업들의 경우 행동 가능한 통찰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촉진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듯이, 호주의

기업들(20%)은 역사적으로 **인력**(조직)에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해왔지만 **거버넌스**와 **프로세스**(16%)로 투자의 초점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싱가포르**는 호주와 비슷한 DRI 평균 점수(3.52)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직들은 **인력**(숙련 기술) 부문에서 4.1 점, **거버넌스**에서 2.4 점을 기록하면서 AP 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 싱가포르의 조직들은 인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신뢰도에서도 까다롭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선두 조직들(DRI 최고점을 받은 조직들)은 NPS(+35%), 직원 생산성(+30%), 운영상의 효율성(+27%)과 같이 KPI 에서 최고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의 히스토리 및 계획된 데이터 관련 투자는 호주와 유사합니다. 호주가 분석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싱가포르는 **인력**(숙련 기술) 및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호주와 싱가포르의 문화적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본**은 DRI 점수에서 싱가포르에 뒤진 평균 2.74 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DRI 선두 밴드에 속하는 조직이 매우 적었으며 그룹으로서도 일본 기업들은 훨씬 적었습니다. **인력**(숙련 기술) 부문에서 3.2 점과 **기술** 부문에서 2.3 점으로 AP 지역에서 3 위에 올랐습니다.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중점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 기업의 30-34%가 **거버넌스**나 **프로세스** 또는 **기술**을 선택, **인력** 관련 부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두 조직들은 새로운 매출 기여도(+25%) 측면에서 가장 큰 향상을 거두고 있었으며, 이는 자본화와 관련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통찰력이나 **인력** 관련 부문의 혁신 주도적인 요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의 노동 시장이 노령화되어 있으며 **인력** 관련 투자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2.69 점의 DRI 평균 점수를 기록, AP 지역에서 4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조직들은 **인력**(조직)에서 3.37 점, **프로세스** 3.05 점 등 두 부문에서 3 위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투자는 10%가 **인력**(조직)에 편성되었지만 향후 투자는 **기술** 부문(13%)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DRI 점수가 낮은 조직들에게 최고의 수단이 **인력**(조직)이며, DRI 점수가 중간 정도인 조직들에게는 기술이 최고의 방안이라는 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한국의 조직들은 데이터 준비성을 강화하고, 자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홍콩**은 DRI 평균 2.67 점으로 5 위로 기록되었습니다. AP 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5 개 시장 중에서 홍콩은 **인력**(조직) 3.27 점, **기술** 2.18 점, **프로세스** 2.91 점을 기록, 세 부문에서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거버넌스**와 **인력**(숙련 기술)은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인 3 위와 4 위였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투자 항목에서, 거버넌스와 프로세스는 16%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홍콩이 거버넌스와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금융 서비스의 중심지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과가 뛰어난 조직들은 신제품 도입과 혁신(10% 향상) 항목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데이터와 분석 이니셔티브로부터 향상된 비즈니스 실적을 보고하는데 내색을 잘하지 않습니다. 요약해보면, 홍콩의 데이터 준비성은 **인력** 요인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대표적인 요인인 반면, 홍콩의 경우 높은 이직률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중국**은 AP 지역에서 6 위에 올랐는데, DRI 평균 점수는 2.64 였습니다. 급성장하는 경제 상황 하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몇몇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데, **인력**(조직) 점수는 홍콩 및 일본보다 높은 3.32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인력**(숙련 기술) 2.99 점, **거버넌스** 1.92 점을 기록, 한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낮은 순위에서 출발한 중국의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기술** 투자(14%)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지만, 향후 계획에서는 **거버넌스**(17%)가 가장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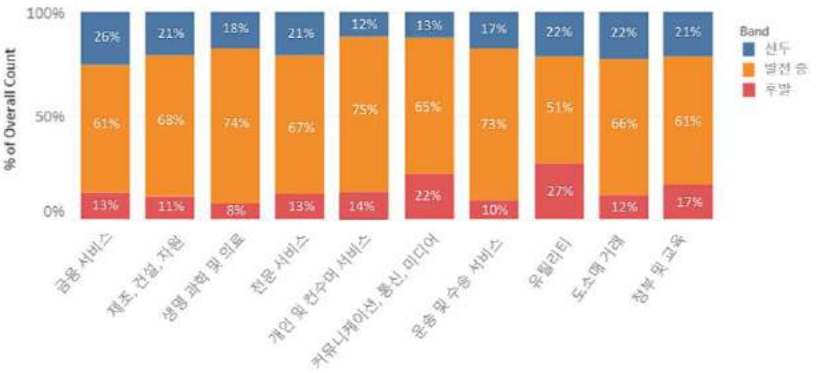
우선 순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인력**과 **기술**이 최우선, **거버넌스**는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데이터 준비성에서 프로-데이터(pro-data), 프로-이노베이션(pro-innovation)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도**는 평균 2.51 점으로 AP 시장에서 7 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도는 후발 밴드에서 가장 큰 비율(3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조직들은 5 개 부문 모두에서 최저점을 기록, 전 분야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및 분석 이니셔티브에 대한 결과와 예상 실적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며 낙관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도입이나 혁신, 운영 효율성 및 순익 등과 같은 항목은 30~35%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실제로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베이스라인 자체가 낮거나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도의 과거 및 향후 예정된 투자 모두 **인력**(조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DRI 가 가장 낮은 밴드에 속한 조직들에게 매우 적절한 수단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도는 데이터 준비성 패턴에서 "리더십이 최우선이자 가장 중요하며 예측은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가 방대하며 비즈니스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데이터 준비성

IDC 는 금융 서비스 및 보험(FSI), 전문 서비스(PS),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통신(CMT), 유틸리티, 도소매(RW), 운송, 제조, 건설 및 자원(MCR), 생명 과학 및 의료(LSH), 개인 및 컨수머 서비스(PCS), 정부 및 교육(GE) 등 AP 지역의 대표적인 10 개 업종에 대한 데이터 준비성 부문을 조사했습니다. 선두 밴드에 가장 많은 조직은 FSI 와 PS 로, DRI 평균 점수가 각각 3.01 과 2.97 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가장 적은 CMT 와 유틸리티는 각각 2.70 과 2.77 점의 DRI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림 6: ***업종별 DRI 밴드***



출처: Tableau-IDC Data Readiness Index, 2019

» **부문별 선두 주자:** FSI 업종이 **인력**(조직) 부문에서 최고점인 3.79, **거버넌스**에서 2.21 점을 기록했으며, PS 는 **인력**(숙련 기술)에서 3.48 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RW 와 LSH 는 **기술**에서 공동 선두로, 2.46 점이었으며 운송 업종은 **프로세스** 부문에서 3.41 점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는 업종별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PS 의 경우 데이터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경향이 높으며, FSI 부문은 규제에 대한 거버넌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RW 와 LSH 는 특정한 활용 사례를 위해 가장 진보된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운송 사업의 경우 프로세스와 절차 중심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문별 후발 업종:** 유틸리티의 경우 **인력**(숙련 기술)에서 3.05, **기술** 2.16 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CMT 는 다른 세 부문인 **인력**(조직) 3.33, **프로세스** 2.89 와 **거버넌스** 1.85 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유틸리티는 부문별 DRI 점수가 **거버넌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거나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유틸리티 업종은 데이터 준비성이 데이터 주도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CMT 는 보다 문제점이 높은 업종으로, 중간 밴드에 속해있으며, CMT 의 조직들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영진(35%)이 데이터보다는 개인의 직관이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타 독특한 데이터 준비성 패턴:** MCR 은 세 부문인 **인력**(조직) 3.63 점, **기술** 2.43 점, **프로세스** 3.26 점을 기록, 업종별 DRI 점수에서 3 위나 4 위를 기록했습니다. MCR 조직들은 직원의 생산성(25%)에서 데이터/분석 이니셔티브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MCR 의 데이터 준비성은 운영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E 의 경우, **인력**(조직) 3.37 점을 얻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인력**(숙련 기술)에서는 3.13 점으로 세 번째로 낮았고 **프로세스**는 3.15 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습니다. 확실히, GE 데이터 준비성은 **인력**과 **프로세스**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투자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기술**(16%)을 선택해 데이터 준비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CS 조직의 경우, **기술** 2.29 점, **거버넌스** 1.96 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인력**(숙련 기술) 부문은 3.35 점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숙련 기술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PCS 업종의 24%만이 일상 업무에 데이터 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 부서별 데이터 준비성

IDC 는 사업 부서별 경영진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 재무, 인사, 운영, IT 와 경영 관리 부서의 데이터 준비성 이니셔티브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 부서별로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 영업과 재무, IT 와 경영 관리 부서가 DRI 의 선두 밴드에 속했으며, 이러한 부서들이 조직의 데이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 하이라이트:

» **시장별:** 호주의 조직들은 조사된 시장에서 가장 높은 DRI 평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업종별:** 금융 서비스 보험 (FSI)과 전문 서비스(PS) 는 업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DRI 평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부서별:** 영업과 운영은 업무 지침과 지원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훨씬 적극적입니다.

» **조직별:** 대규모 조직일수록 **프로세스**와 **인력** (숙련 기술) 부문이 주도하면서 더 높은 DRI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영업 및 운영:** 두 부서 모두 평균 DRI 점수가 3.0 정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에 걸쳐, 영업은 **인력**(조직) 3.73 점, **프로세스** 3.48 점으로 최고점을 나타냈습니다. 운영은 **인력**(조직) 3.71 점, **프로세스** 3.45 점으로 두 부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부서는 DRI 차트에서 유사점을 보였는데, 업무에 대한 지침과 지원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훨씬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IT 와 경영 관리:** 두 부서의 평균 DRI 점수는 2.9 점 주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IT 는 **기술**(2.69)과 **거버넌스**(2.13) 부문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경영 관리는 **기술**(2.68) 부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IT 와 경영 관리는 기술적으로 권한이 가장 많이 부여된 부문이었습니다. IT 부서는 NPS(28%)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영 관리는 신제품 개발과 혁신(30%)에서 최고의 성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관리의 일상 업무에서 데이터 툴을 사용하는 것은 36%에 불과, 실제 부서 평균치인 38%보다 낮았습니다. 과거 및 향후 투자의 중점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경영 관리는 **거버넌스**와 **프로세스**(40%)를 선택했습니다. 초기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이터 준비성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재무와 마케팅, 인사:** 재무, HR 및 마케팅의 평균 DRI 점수는 대략 2.8 점이었습니다. 재무 매니저들은 일상 업무에서 데이터 툴을 가장 많이(46%) 사용하고 있는 반면, 마케팅 매니저들의 데이터 툴 활용은 최소(2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진행된 비즈니스 실적을 보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직원의 생산성이 35% 향상되었으며 운영의 효율성은 37%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무 부서의 경우 **기술** 점수가 가장 낮은(2.09)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는데, 개편된 기술을 통해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HR 은 **프로세스**에서 최저점(3.11)을 기록, 데이터 관리와 소비를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마케팅은 **인력**(조직) 부문에서 3.47 과 **인력**(숙련 기술) 3.11, **거버넌스** 1.96 점으로 최저점을 받아, 혁신을 지지하지만 데이터 준비성 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직별 데이터 준비성

기업 형태와 회사 규모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조직일수록 5 개 부문에서 DRI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MNC 들 역시 민간이나 로컬 MNC 들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높은 DRI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직이 분산되어야 하며 여러 위치에서 운영되어야 할 경우, DRI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데이터 준비성은 조직의 확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확실하지만 대규모 조직들일수록 DRI 에 투자를 늘리는지 아니면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투자가 엔터프라이즈의 확대를 이끄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다양한 조직별로 DRI 를 비교할 때, 소규모/민간 소유의 조직들에서 나타난 가장 큰 격차는 **인력**(숙련 기술)과 **프로세스** 부문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조직들일수록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한 데이터 숙련 기술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데 일관적인 절차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수 지침– 적합한 목적 규명과 도입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5 가지 공통된 특징 측면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조직들은 DRI 를 토대로 계량화하기 위해 이러한 5 가지 공통 특징을 사용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 준비성을 평가함으로써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분야는 어디인지, 보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인력**과 **프로세스**,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어떤 수단을 도입할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표 2 는 조직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반복 가능성과 혁신, 인텔리전스를 향해 데이터 관행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제시한 지침입니다.

표 2: *다양한 데이터 준비성 특징을 토대로 한 권고 사항*

데이터 준비성 특징	국가 별 시장	업종 사례	DRI 밴드	IDC 권고 사항
인력, 프로세스, 거버넌스에 확실한 강점	호주; 싱가포르	재무 서비스와 보험; 전문 서비스	선두 밴드	» 데이터 아키텍처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요인 활용, 민첩한 도입과 양방향의 통찰력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툴 도입,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 전환 » 혁신을 독려하고 보호하도록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 모델[6] 도입
기술과 거버넌스에 일관되게 집중; 인력 관련 부문(특히 조직)에 대한 과소평가	일본; 홍콩	정부 및 교육; 유틸리티; 생명 과학 & 의료	후발 밴드에서 발전 밴드로 이동 중인 밴드	» 데이터 준비성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인력 관련 부문(조직과 숙련 기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 기술 투자로부터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개선하거나 재편해야 함
인력(조직), 기술, 프로세스에서 더 양호	한국	제조, 건설&자원; 운송	발전 중인 밴드	» 변화를 신속히 평가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기술 활용 » 혁신을 독려하고 보호하도록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 모델 도입
인력(숙련 기술)/기술 우선, 거버넌스는 따라잡는 방식	중국	도소매; 개인 및 컨수머 서비스	발전 중인 밴드와 후발 밴드	» 인력(조직)과 프로세스 요인 우선; 규모와 범위 확대 위해 필요한 수단 »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강화
모든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 관계자들의 기대치 관리	인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통신	후발 밴드	» 경영진의 실행 촉구 위해 인력(조직) 요인에서 시작. » 데이터 문제에 직면할 때 집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준비성 이해; 5 가지 모든 부문에 대한 관심 필요

출처: IDC, 2019

결론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 준비성이 비즈니스의 실적을 주도하며, 일반적으로 **인력** 요인이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동기 유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력**(조직과 숙련 기술)은 DRI 평균 점수를 능가할 수 있는 성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조직들이 인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향후 투자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들의 숙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입 가능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력** 관련 요인을 넘어선 조직들의 경우, 후발 주자에서 실행되는 요인들(**기술**과 **거버넌스**)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데이터 중심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데이터 준비성을 위해 "일괄 적용(one-size-fit-all)" 되는 모델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지역과 업종, 부서의 상황에 맞는 공통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들은 상황에 맞는 지침을 참고해 모든 비즈니스 운영과 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성되며 실시간 의사 결정과 자율 시스템을 토대로 자가 학습 및 자가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시대에서 변혁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와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 기술은 향후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플랫폼의 핵심인 인텔리전트 코어[7]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준비성과 데이터 우수성으로 가는 여정은 길지만 경로를 따라 필요한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부록

색인	설명
1	**비즈니스 성과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성과 매트릭스의 개선된 비율을 지칭함; 순추천고객지수(NPS; net promotor score), 신규 고객 확보, 신제품 개발 및 혁신, 운영의 효율성, 비용 절감, 순익, 신규 매출 창출, 직원의 생산성
2	**IDC** 의 **Data Excellence Maturity Model** 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직 기능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조직들이 투자할 때의 성숙도 단계를 5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자료는 IDC 발행 보고서 *IDC MaturityScape: Data Excellence 1.0* (IDC #US44840819, February 2019)에서 제공됨. 그림 7: ***IDC MaturityScape: Data Excellence – 단계 개요***
3	**조사 방법론:** 본 설문조사에는 (1) 조직의 데이터 활용 방법, (2) 조직의 경험 및 기대한 비즈니스 성과, (3) 과거 및 향후 투자 중점 분야 등 3 개 범주에 17 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 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특징과 정량화 방법은 무엇인가? • 데이터 준비성이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주도하는가? • 성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준비성에 대한 문맥상의 요인은 무엇인가? •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DRI 요인(부문)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4	**밴딩(스코어링) 방법**은 표 1 에 제시된 핵심적인 특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1~5 점까지 절대 범위 내에서 부여되었으며 5 점은 데이터 준비성이 가장 훌륭하게 정립되어 있음을, 1 점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밴딩은 표본 분포에 따라 조정된 실제 대역폭의 절대 중앙 점수 3 점을 토대로 설정되었습니다. 밴드 1(선두)의 컷오프 점수는 3.6 점이며 밴드 2 의 컷오프 점수는 2.0 입니다.
5	**상대적으로 낮은 DRI 점수**를 받은 4 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점 이하의 조직, 2.0 이하의 조직, 2.4 이하의 조직, 2.8 이하의 조직
6	데이터 거버넌스의 **통합 모델**은 시스템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이 중앙 프로그램이나 우수성 센터(CoE)를 통해 이루어지는 IT-LoB 통합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CoE 는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며 인력과 프로세스, 기술 변화를 아우르고 기존 환경과 하이브리드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허용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침을 통해 운영됩니다.
7	IDC 는 **인텔리전트 코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코어를 통해 조직들은 데이터로부터 명확한 통찰력과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알고리즘과 코드,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X Platform: A Framework for the Intelligent Core* (IDC #US43384517, January 2018)에서 제공됩니다.

IDC Asia/Pacific
80 Anson Road, #38-00
Singapore 079907
T: 65 6226 0330
Twitter @IDC
https://www.idc.com/ap

IDC Custom Solutions

본 간행물은 IDC Custom Solutions 가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과 분석, 리서치 결과는 특정 벤더의 후원이 언급되지 않는 한 IDC 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간행한 상세 리서치 및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IDC Custom Solutions 는 IDC 콘텐츠가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배포되도록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IDC 콘텐츠 배포에 대한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한 보증이나 의견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보도자료 또는 판촉물에 사용되는 모든 IDC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외부 간행은 IDC 부사장이나 지사장으로부터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안된 문서 초안은 이러한 요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IDC 는 어떠한 이유로든 외부 사용의 허가를 거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2019 IDC. 허가 없는 복제는 엄히 금지됩니다.